

하나님의 선물

죄악된 인류 /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한줄요약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

도입

법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법이 탄생하게 된 것은 고대왕국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생겨난 이유는 규칙이 없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법이 생겨나고 그 위에 나라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결론은 법이 생긴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 아담으로 인한 사망

그렇다면 이 죄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요. 그 한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과거의 인류만이 아니라 현대의 우리를 봐도 법이라는게 줄어드는게 아니라 그 항목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을 보면 과거나 현대나 죄가 인류를 지배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생명이신 예수님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과 법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고, 아담이 대표자로 죄를 지어 온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이었다면 예수님 한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음으로 우리에게 사망은 물러가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 표현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주지않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나 대가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없이 그저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대가없이 무한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감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두란노 HOW주석 39_로마서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톨라이트 1부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NICNT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한줄요약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도입

믿음이라 말해보고 한국교회를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 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학교부터 교구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위기가 왔을 때 일반종교와 같이 자신의 헌신도와 이루어지는 현상을 비교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1)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일까요?

먼저 대상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있어 차별없이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모두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격이 되는 대상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네 입을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의 말씀과 함께 본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주”로 믿는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사역이 우리를 향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이죠.

2)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실은 이 구원에 대한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류의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쌓으려 노력합니다.

심지어 택함받은 백성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조차 율법이 치우쳐 그것으로 구원의 잣대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행15)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의 방법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인간을 계속 죄를 짓고 인간의 죄는 인간의 공로로는 조금도 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 받는다.”라는 원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납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지 않고는 죄인인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아름답게 들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차별없이 주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쁜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복음 또한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납하여 전하는 일 또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10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한줄요약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도입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이 사랑은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것을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것 일까요?

1)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초반부를 요약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말을 이어갑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지지 말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빛지지 말라” 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이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의 기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니만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에게 악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게 되는게 여기서 완성은 종결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이룸”을 뜻합니다.

즉 모든 율법을 사랑을 통해 이룬다는 것이죠.

2)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하지만 세상은 사랑에 대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잘 몰라 사랑의 내용을 스스로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사랑의 개념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의 기준은 필히 악한쪽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에 이슈라던가, 포옹이라는 주제로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경우나,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못한 것까지 포용하는 행위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은 각 계명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답게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답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은 세상의 요구대로 그리스도인이 갈 것을 요구하지만 세상의 요구대로 하면 또 그리스도인 답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말씀에 기반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때 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출처: 두란노 HOW주석 39_로마서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톨라이트 2부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NICNT 로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 하나님의 섭리

한줄요약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입

사람들은 전문가를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비전문가인 우리보다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1) 하나님의 계획

오늘 라합의 신앙고백이 그렇습니다. 라합은 예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들 코앞까지 온 이스라엘에 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일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며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으며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신들은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 자신이 숨겨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행적을 들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의 섭리에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그들이 예리고로 무너뜨릴 때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의 고백을 보면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나안이 정복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특별게시가 아닌 일반게시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가온 성도들은 특별게시를 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나라 열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후에 라합과 가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 후손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계획의 정체는 라합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 공동체를 넘어 만기로 작정된 모도를 구원하시려는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그렇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주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우리는 여기에 때로는 불순종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가십니다.

라합의 경우도 그의 삶이 기생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믿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섭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두란노 HOW주석 06_여호수아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엑스포지멘터리 여호수아